

산업경기 악화에 석유화학은 호황

현대경제연구원, OECD 수출비중 낮아 ... 자동차 하강에 반도체 불황

2012년 산업경기는 2011년보다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내수 관련산업이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 증가로 해운업, 조선업은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은 10월6일 <2012년 산업 경제의 5대 특징> 보고서에서 “최근 산업지표들을 살펴보면 생산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재고와 출하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2012년에는 전반적인 산업경기가 2011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비중이 낮은 석유화학산업은 호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도국이 비교적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개도국 수출이 증가해 해운업과 조선업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계, 철강, 자동차 등은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2011년의 호황을 마치고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은 2012년에도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서 불황 국면을 지속하고, 정보통신(IT)은 반도체, 패널 부문의 부진으로 불황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원 연구위원은 “2012년에는 선진국의 저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도국이 고성장할 것”이라며 “수출 중 신흥국 시장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2년 세계의 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하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역으로 보면 엔화나 위안화에 대한 원화 가치,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중저가 고품질제품의 선호도 급증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율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시장 개선 미흡, 가계부채 문제 잠복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높아지기 어려워 내수산업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1/07>